

# 양계의 방역대책



김 영 환

<천호부화장 상무>

근년에 와서 양계업이 일반적으로 대규모화 되고 집단양계가 각지에 나타나게 된 이래 닭병, 특히 악성전염병의 발생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다.

현재 뉴캐슬병 같은 것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여, 양계가를 괴롭히고 양계경영상 중대한 장애를 주고 있다.

또 뉴캐슬병 외에도 전염성기관지염·후두기관지염·만성호흡기질환과 싸알디 등의 호흡기질환을 위시하여 계두·백혈병·류코사이토준병·흑두병 등 경계를 요하는 전염병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가 번성하여짐에 따라 다시 새로운 병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 양계가들은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이 되었다.

닭의 산란율을 1%높이려는 연구, 사료값 절약의 연구—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하루 아침에 전염병의 침입을 당하고 많은 병계를 내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수포가 되고 만다. 그점을 생각하면 닭의 건강관리, 닭의 방역대책이 금후의 양계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 나라의 축산계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이 방역 대책일 것이다. 우리는 가축 위생에 관계하는 기관에 협조를 얻어 물샴 틈 없는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양계가도 극히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면 아직도 닭병에 대한 자각과 경계심이 부족하다고 본다. 전염병이 근처에 생겼다고 하면 그때서야 야단이지만 잠잠하고 나면 또 무관심해진다. 그리고 양계장 문앞에 밭을 담구는 소독관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제 3자가 보아도 정말 한심한

일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적당주의 방식으로는 언제 상기한 전염병의 피습을 당할는지 모를 일이다.

한국 전토에는 이미 각종의 바이러스와 병균이 퍼져서 무균지(無菌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졌으며, 생산물의 원거리 교류가 점차 왕성하기만 하므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양의 질병이 발생할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질병이 생기면 비록 닭 자체에 피해는 가볍다고 하더라도 산란의 감소, 생산물의 출하 정지 등 상당한 타격을 면할 수 없으므로 평소부터 방역 체계를 강화하여 병균의 침입을 절대로 못하게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이다. 그것도 지금과 같이 닭의 사양밀도가 높아져서 양계가 한사람의 개인으로서 큰 효과를 올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도(道)단위 또는 군·면 단위로 관계자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병균과 싸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양계가는 물론이고 사료상인·계란상인의 양계장의 출입 등에도 협력을 구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각지의 양계장에 출입하고 있는 그들 상인이 가끔 질병 전파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 단위의 방역 대책에 대하여는 따로 기회를 얻어 말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양계가 개인의 대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닭의 질병을 예방 관리함에 있어서 닭의 사양관리 전반에 걸쳐 세심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열거하는 여러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1) 상인들이 지고 다니는 출처 불명의 병아리는 사지 말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양심적인 부화장에서 살 것

그런 부화장이라고 절대 안심할 수 있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양심적인 부화장이면 당연 위생에도 유의할 것이고 먼저 안심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2) 육추사는 반드시 성계사보다 먼저 바람을 받는 쪽에 위치해야 한다. 폐계와 계분의 처리장은 반드시 육추사보다 바람을 늦게 받는 쪽에 위치해야 한다.

(3) 양계장의 입구에는 반드시 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판을 설치할 것. 이것은 과학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고는 하지만 방문자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라 경시할 수 없다.

(4) 동일 계사안에 체력이 다른 노계와 햇닭을 함께 기르지 말 것. 이것은 햇닭이 늙은 닭에 압박 당하여 사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체력이 저하되어 병이 잘 걸리게 된다.

(5) 평사나 케이지를 막론하고 밀사는 절대로 하지 말 것이다.

(6) 계사안의 청소, 특히 사료통, 물통의 청소에 주력하고 “병은 입에서부터”라는 말과 같이 주의해야 한다.

(7) 견학자 및 방문객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특히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사절해야 할 것

(8) 더러운 것을 털 때는 계사 주위에서 하지 말 것

(9) 곤충, 참새나 쥐를 계사 안에 넣지 말 것

(10) 사료 포대, 계란 용기, 폐계 상자 등이 병균을 옮기니 주의할 것

(11) 질병이 많이 생기는 지대에 여행은 가급적 삼가할 것

이상 양계가로서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것은 실행하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생각나는대로 열거했으나, 이것만 완전히 실행하면 병에 걸릴 걱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상기한 외에도 또 중요한 질병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소의 사양관리로서 대체로 사람도 그렇지만 닭도 병균이 체내에 들어와도 반드시 축사에서 발병되는 것은 아니다. 전연 외부에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때도 많고 증상을 나타내도 아주 가벼운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증상이 없다고 해도 안심은 절대 금물이고 닭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환경기에 있어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즉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초산 전후의 복잡한 생리적 변화, 예방접종, 계사간의 이동(평사에서 케이지 또는 케이지에서 평사) 등이 발병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근래에 유행어로 말하면 닭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나, 예를 들면 백혈병이 햇암닭의 초산기 전후에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것 등은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닭의 몸 속에 침입하여도 닭이 극히 건강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바이러스의 증식에 필요한 환경이 못되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저절로 소멸해 버린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전연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던 “암”도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는 병의 씨를 심어도 발병하지 않고 언젠가 소멸하였다. 그러나 같은 바이러스를 암환자에게 이식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축사에서 번식을 개시한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실험이지만 닭일 때에도 역시 같은 경우가 되리라 본다.

닭이 말할 수 없이 건강하기만 하면 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받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 만약 체력이 약하면 예방접종을 했다해도 충분한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을 체한험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닭병 예방의 근본적 대책은 다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닭을 튼튼히 기를 것

(2)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생활 환경을 좋게 해줄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닭의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의 피해에서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수십년 전 농가의 마당에 몇마리의 닭이 방사되고 자유로히 생활했을 때에는 닭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전연 관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케이지에 기르는 닭은 항상 그곳에서 불안정하게 살고 있다.

도회지 같은 곳에서는 밀사·소음·고온·다습 등 무엇 하나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원인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워지고 있는 닭이라는 생각 외로 병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 또한 스트레스는 닭의 항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예를 들면 고온다습의 원인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는 닭의 체내에 비타민의 합성을 방해하고 자약증 발생의 원인도 되고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와 태풍 등에 의한 급격한 스트레스는 혈액중의 칼슘 농도를 저하시키고 근위의 수축운동 불규칙화, 소화액의 분비 분량을 일으키는 외에 난추증, 혈관발생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고 한다.

닭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으면 각기관 내분비선, 조직 등 세포의 활력이 점점 둔해지고 식욕도 퇴진 감퇴한다. 그렇게 되면 항병력의 저하는 단연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 병계의 원인을 스트레스만 완전히 예방해 주면 병계의 발생은 대폭 감소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닭을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

- (1)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
- (2) 영양 보급을 충분히 할 것

요약하여 상기 2가지 점이 있다고 보는데 밀사를 피하고 한서의 계절에 주의하고 가급적 외부의 소음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계사의 입지 조건

을 생각해 주면 설령 케이지라 하여도 반드시 스트레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항생물질의 첨가(사료 전량의 0.2~0.4%첨가)도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고 파나 마늘 종류의 급여도 유효하니 실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닭 본래의 생리에서 말하면 극히 부자연한 사육법인 케이지 사육일 때는 특히 그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이지를 중지하고 전과 같이 방사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케이지만이 이상적인 사육법이라고는 생각지 말고 케이지의 결함을 시정하여 가며 노력해야 한다. 모수의학 교수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최근의 전염병은 바이러스성의 것이 많다고 한다. 바이러스는 감염되어도 바로 발병하지는 않으나, 그 요인은 사육법에 있는 것 같다.

나쁜 환경 속에서 사육하면 넓은 의미의 스트레스가 닭에 영향한다고 한다. 문제는 고온·다습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쉽고 외국과 비슷한 사육법을 하고 환경 정비를 소홀히 한 대량 사육이 전염병 다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우량한 병아리와 좋은 사육법이라고 하여도 환경 설비가 나쁘면 닭병의 피해를 받지 않고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병원체와의 접촉을 없게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세계의 경제계바브콕 B-300

## 육용계의 왕자 베루치



우량 병아리의 명분

# 서울부화장



대표 : 윤경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동 10-2

Tel. (천호) 521